

#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 FASHION NFC 기술 활용한 '발렌시아가 뮤직' 상품 출시 '발렌시아가', 음악이 들리는 패션<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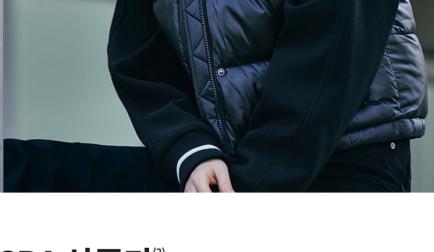
'발렌시아가'의 기반한 실험은 멈추지 않는다. '발렌시아가(BALENCIAGA)'가 최근 스커트 출시로 화제를 모은데 이어 11월 20일 '발렌시아가 뮤직'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기술을 내장한 후디와 티셔츠로 기획된 것으로 해당 NFC를 스캔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이다. 이번 협업은 영국의 밴드인 아카이브가 제작한 8분 30초 길이의 '패턴(Patterns)' 트랙을 들을 수 있다. '패턴'은 아카이브가 '발렌시아가 뮤직'을 위해 특별히 녹음된 곡으로 다른 플랫폼에서는 스트리밍할 수 없다. 또 '발렌시아가 뮤직' 허브에 재생되는 7시간 분량의 아카이브 리스 트도 얻을 수 있다. 예술 감독 데나(Demna)는 "음악은 내 삶의 큰 부분이자 '발렌시아가'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발렌시아가 뮤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아티스트와 그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영향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다. '발렌시아가 뮤직' 상품은 블랙 컬러 후디(약 136만원)와 티셔츠 2종(98만원, 117만원)으로 구성됐다. 앞면에 아카이브 밴드 로고, 등판에는 아카이브의 디스코그래피와 '발렌시아가'의 로고가 적혔다. NFC 기술은 이와 연동된 디지털 제품 여권(DPP) 기능을 통해 추후 공개되는 음악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발렌시아가 뮤직 컬렉션



탐텐



## FASHION

### 고물가 시대, 가성비 내세운 토종 SPA상종가<sup>(2)</sup>

'탐텐', '스파오', '에잇세컨즈' 매출 15~25% 증가

대수 소비 시장의 침체를 증명이라도 하듯 산업 전반에 '가성비' 소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패션 시장 역시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내세운 '탐텐', '스파오', '에잇세컨즈'가 강세를 띠고 있다. 이들은 올해 11월 중반까지 전년 대비 각각 15%, 20%, 25%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베스트 아이템의 경우 춘하시즌 판매율이 90%를 상회했다. 국내 SPA 브랜드들은 베스트 상품의 경

우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춰 경쟁력을 높였다. '탐텐'은 올해 690개점에서 9,000억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고 내년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최대 강점인 자가 생산 공장의 소싱 파워를 기반으로 '탐텐', '탐텐키즈', '탐텐밸런스' 등 각 카테고리별 볼륨을 키우고 있다. '스파오'는 연령층 확대를 목표로 40~50대를 흡

수할 수 있는 상품을 보완하고 있다. '스파오' 명동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등 상위권 매장은 월매출이 15억원에 달하며 올해 110개점에서 4,80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무신사 스탠다드'가 본격적으로 몸집 키우기에 나섰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홍대점, 강남점에 이어 대구 동성로점, 성수점, 부산점을 오픈했으며 내년 30개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TEXTILE '스텔라 매카트니', '바쉬' 등 디자이너들의 지속가능 소재<sup>(3)</sup>

포도 · 재생 울 등 재생 소재 개발에 투자

친환경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되면서 패션 기업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친환경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나일론을 넘어 재생 가죽, 재생 울 등도 활용되고 있다.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패션 디자이너의 리더인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는 곰팡이, 해초, 암석 등 다양한 자연 재료를 패션 컬렉션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포도, 코르크 폐기물을 활용한 가방, 신발 라인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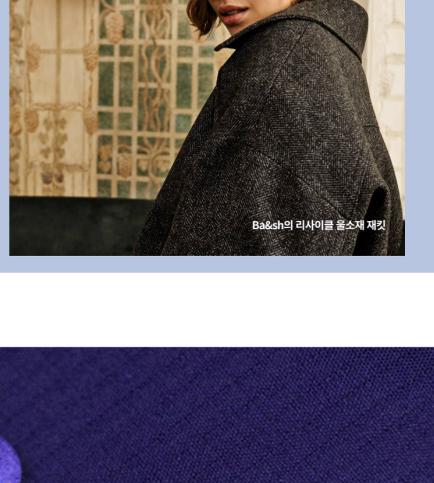
'스텔라 매카트니'는 이번 추동시즌 포도 폐기물을 비건 가죽 소재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핸드백을 소개했다. VEGEA 소재는 80%가 식물성, 재생 가능,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졌다. 특히 포도 줄기를 재생해 만든 가죽 대체 소재로 금속, 독성 물질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바쉬(Ba&sh)'는 재생 농업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다. '바쉬'는 제품 생산의 재생 전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우루과이 농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재생 양모를 컬렉션에 활용했다.

패션 산업 내에서 생산 다양성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글로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바쉬'는 패션 산업과 농업과의 혁신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재생 농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 재생 중인 약 8,000헥타르 토지에 해당하는 3개 농장을 지원했고, '바쉬'는 2025년까지 컬렉션에 재생 울의 비중을 30%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겨울 '바쉬' 컬렉션의 울 제품 중 98%는 공식 기원의 친환경 인증받은 울 소재를 사용했다.



스텔라 매카트니



Ba&sh의 리사이클 울소재 재킷



셸코퍼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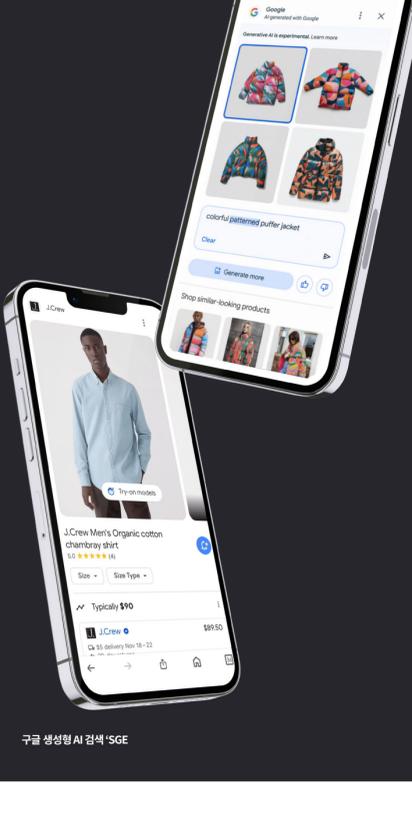
## TEXTILE 셸코퍼레이션, 폐기원단으로 고기능 아웃도어 소재 개발<sup>(4)</sup>

폐원단 재활용한 'RE:ANGEL' 개발

셸코퍼레이션이 폐원단 재료를 재활용한(upcycling) 투습방수 아웃도어 전문 섬유 'RE:ANGEL'을 개발했다. '셸코퍼레이션'은 기능성 저하로 인해 버려지는 폐기 원단에 특수한 코팅 가공을 거쳐 방수 기능을 더하고, 신축성을 높여주는 얇은 배출하는 투습 원단을 제작한 소재이다. 셸코퍼레이션은 현재 국내에서만 폐기되는 원

단이 일평균 103톤 분량이고, 소각 등을 통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3,894톤에 달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폐기 원단의 생명을 연장해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RE:ANGEL'이라고 강조했다. 셸코퍼레이션은 아웃도어 활용에 적합한 고기능성 원단 및 의류 제작 원천기술을 확보한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다. 원천기술은 투습방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폐기될 원단을 기능성 재활용 섬유로 탈바꿈했다. 유은진 대표는 "셸코퍼레이션은 자원순환성 향상과 친환경 섬유코팅기술 확보라는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글로벌 친환경 아웃도어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내년엔 'RE:ANGEL'의 상용화 단계를 거쳐 다양한 의류, 집합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3D DIGITAL GOOGLE 구글, AI가 선물하는 맞춤형 연말 선물<sup>(5)</sup>

검색, 제품 시각화, 가상 착용 등 생성 AI 기술 도입

구글(Google)이 연말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AI 쇼핑 도구를 출시했다. 특히 이번 기술은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선물 검색, 제품 시각화, 가상 착용 등 개인화 서비스에 최적화를 더하여 쇼핑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SGE, 생성형 AI 검색'을 활용한 맞춤형 선물을 추천 가능하다. 이용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상과 키워드 등을 넣으면 이에 맞는 선물 아이디어를 추천해준다. 구글은 연말 크리스마스 혼자 지낼 친구를 위한 선물과 같은 키워드를 넣으면 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준다.

또 SGE를 통해 쇼핑 목록을 검색하면 구글 쇼핑 카테고리 350억 개 이상의 쇼핑 목록 중 검색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이미지와 일치하는 상품을 골라준다. 소비자가 '컬러풀한 색상의 패딩 재킷'을 검색하고 이미지 생성을タップ하면, 이에 맞는 이미지가 먼저 생성되고 이와 유사한 쇼핑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세번째 가상 착용 기술은 먼저 시행했던 여성용 상의 생성 AI 기반 가상 착용 도구의 반응이 좋으며 따라 남성용 상의 가상 착용 서비스까지 확장한 것이다. 구글은 쇼핑 플랫폼의 가상 착용 기술이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의 만족도를 훨씬 높인다고 분석했다.

피부색, 체형, 키, 사이즈 등 40가지 모델 중 자신과 유사한 모델을 선택해 제품을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기능이다. 구글은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시즌에 구글 AI 쇼핑 검색 기능이 스마트한 쇼핑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센드박스에 오른 라코스테 월드투어

## 3D DIGITAL '라코스테', 90주년 축하 행사는 가상 세계에서<sup>(6)</sup>

더 샌드박스에 '라코스테 월드투어' 마련

프랑스 브랜드 '라코스테(Lacoste)'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가상 세계에서 초대한다. '라코스테'는 11월 27일부터 '파리의 라코스테' 아래가 스토어에서 90주년 기념 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넬의 아틀리에인 '메종 라마리에'와 협력한 8피스의 예술 컬렉션이 공개된다.

또 '라코스테'의 90주년 기념 행사는 온라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라코스테'는 '더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라코스테 월드 투어' 플랫폼을 구축했다. '라코스테 월드 투어' 플랫폼에는 축구, 스포츠, 파울루, 파리, 골프 등 테마 장소가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정류장에 머물며 약어 테마의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샌드박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는 12월 7일까지 '전설적인 악어 부족의 고향'인 라코스테 섬을 탐험

할 수 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패션, 문화, 게임 간의 격차를 해소해 '라코스테'의 글로벌 커뮤니티에 몰입형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임 속에서는 '라코스테'의 상징인 악어 엠블럼과 프랑스 패션 스포츠 브랜드인 '라코스테'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FABRIC DIVE가 ISPO 원년 2023에 참여했다

## 3D DIGITAL DYETEC연구원, ISPO서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FABRIC DIVE' 홍보<sup>(7)</sup>

디지털 소재 활용한 콘텐츠와 가상 의류 쇼룸 전시

DYETEC연구원이 세계적인 스포츠 박람회 'ISPO 원년 2023' 전시에서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인 'FABRIC DIVE'를 홍보한다.

ISPO는 오는 28~30일 독일 뮌헨 소재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스포츠 박람회로 스포츠, 아웃도어 분야에서 글로벌 업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DYETEC연구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섬유소재 빅

데이터 플랫폼 '패브릭 다이버(FABRIC DIVE)'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소재를 활용한 가상 의류 시뮬레이션 기반 콘텐츠와 가상 의류 쇼룸을 전시해 비대면 기반 거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최운성 소재빅데이터연구원 센터장은 "ISPO 2023 전시회는 'FABRIC DIVE'의 글로벌 확산과 가속화하고,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소재기업과

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FABRIC DIVE'는 섬유소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섬유소재 데이터 및 국내외 기업 데이터 등을 수집·활용해 소재기업과 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비용과 시간절감에 가능한 빅데이터, AI 기반 플랫폼이다.

### 기사 및 사진 출처

- (1) HYPEBEAST \_ Balenciaga's Latest Designs Come With Exclusive Music from Trip-Hop Group Archive, 23년 11월 20일
- (2) 어패럴뉴스 \_ 고물가 시대, 가성비 내세운 토종 SPA 상종가, 23년 11월 22일
- (3) FASHION NETWORK \_ Ba&sh commits to regenerative agriculture projects, 23년 11월 26일
- (4) 매거진 환경 \_ 셸코퍼레이션, 폐기원단으로 고기능 아웃도어 소재 개발, 23년 11월 25일
- (5) BOF \_ Google Is Rolling Out New Generative-AI Shopping Features for the Holidays, 23년 11월 16일
- (6) FASHION UNITED \_ Lacoste dives into the virtual world to celebrate its 90th anniversary, 23년 11월 24일
- (7) 뉴시스 \_ 다이텍연구원, 독 원년 ISPO서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홍보, 23년 11월 22일